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62호 【루계 제25871호】 주체106(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외교단과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체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6일 외무상 리용호동지에게 외교단을 대표하여 팜비엣 홍 월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알렉싼드르 마페고라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7일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알렉제이 바르투쏘브 로씨야련방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본사기자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에 즈음하여 26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이날 일본 전 부수상 카네마루 싱의 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2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성대히 진행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나라의 핵무력건설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국방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축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빈터우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과 로고를 가슴뜨겁게 회억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방력강화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힘을 넣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전략적로선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확히 조직령도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미국의 UPI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결론하시면서 조선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한것은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위대한 력사적승리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방공업의 중점목표, 전략적과업과 중대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천적방도들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라오스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에이션 에이취》, 《스테이츠맨》, 《에코노믹 타임스》, 인디아—아시아통신, 지 뉴스TV방송, 이란의 파르스통신, 타스님통신, 프레스TV방송, 싱가포르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련합조보》,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인터네트홈페지 《주체—네팔》,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니홍게이자이신붕》, 《아사히신붕》, 로씨아의 따쓰통신, 인터네트신문 렌따. 루, 인터네트잡지 《렘취취》,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국신문 《인터내슈널 비지니스 타임스》, 도이췰란드만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 에찔트신문들인 《알 미쓰리 알아움》, 《알 파즈르》, 미국의 인터네트웨브싸이트 《구글뉴스》, 베네수엘라의 벨레쑤르TV방송,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에스빠냐 바스꼬주체사상연구소조,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제8차 군수공업대회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을 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민족최대의 축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로씨아의 따쓰통신, 신문 《이즈베스찌야》, 인터네트신문 렌따. 루, 인터네트잡지 《렘취취》,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중국의 신화통신, 베네수엘라의 벨레쑤르TV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이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관》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자력자강의 투쟁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자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

우리 식의 푸르푸롤생산공정 확립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민총돌격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우리 나라에 푸르푸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일떠선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푸르푸롤을 생산하는 공업부문이 일떠서게 된것은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며 보향지도국과 김재설사장을 비롯한 태천룡업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귀중한 결실이다.

푸르푸롤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포악하고 야만적인 경제제재책동에 파렬구를 낼수 있는 또 하나의 위력한 철추가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푸르푸롤은 강냉이송치나 며질을 비롯한 농부산물을 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할 때 나오는 기름모양의 액체이다. 유기화학공업의 기초물질, 출발물질의 하나로서 원유가공공업, 화학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식료공업, 경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특히 합성섬유생산의 기본원료로 쓰이고있으며 식물성장촉진제와 살초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약합성과 윤활유, 접착제 등의 생산에 리용되고있다. 푸르푸롤의 리용분야가 매우 넓은것으로 하여 현재 세계적범위에서 그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체적인 푸르푸롤공업창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푸르푸롤은 윤활유를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촉매제라고 하시면서 푸르푸롤생산공정을 꾸림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떨쳐나선 태천룡업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보향지도국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방조밑에 생산능력이 큰 푸르푸롤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부산물인 강냉이송치로부터 푸르푸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정을 일떠세울것을 말기한 사장 김재설동무는 그 실현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푸르푸롤생산과 관련한 기술과 경험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로 접점이 막아서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어려해동안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의 지혜와 재능과 열정, 모든것을 짱그리 바쳐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전체 인민을 헌명하게 령도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푸르푸롤공장을 하루빨리 일떠세울수 있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푸르푸롤공장건설을 위한 수십개 대상의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내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태천룡업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부족하고 어려운것이 많은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푸르푸롤공업의 개척자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애국적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여 푸르푸롤생산을 위한 과학기술의 렁마루를 한치한치 점령해나갔다. 이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한목숨을 바쳐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고비들도 극복하면서 마침내 푸르푸롤생산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지표들을 마련하였다.

보향지도국의 책임일군들은 우리 식의 푸르푸롤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이들의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을 위한 총결사전에 떨쳐나선 태천룡업공장과 보향지도국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애국투쟁에 의하여 지난해 9월 드디여 우리의 푸르푸롤시제품이 생산되여나왔다.

승리의 신심에 넘쳐 이들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그로부터 석달후에는 국제표준규격에 부합되는 높은 순도의 푸르푸롤을 뽑아내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푸르푸롤생산기술의 명맥을 우리 식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충정의 보고를 올리였다.

우리의 원료,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는 주체화된 푸르푸롤생산공정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푸르푸롤공업이라는 새로운 화학공업부문이 일떠서게 되였으며 푸르푸롤의 수입력사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푸르푸롤을 기초물질, 출발물질로 리용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원료와 생산공정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담보할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의 길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국가과학기술성과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물길굴건설을 위한 작업갱공사 련이어 결속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단천발전소 물길굴공사에 달라붙은 건설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천험의 산발들과 심산계곡을 타고앉아 굴진전투를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 과정에 이미 조선인민군 신은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여러개의 작업갱공사를 끝내고 기본물길굴공사에서 실적을 올리고있다.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 평안남도려단과 새로 조직된 자강도려단 돌격대원들도 많은 작업갱굴진을 목표보다 1개월이나 앞당겨 끝냄으로써 기본물길굴공사에 진입할수 있는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건설중에 있는 발전소들의 조업기일을 앞당기고 대규모의 단천발전소를 최단기간에 건설하며 원자력발전소건설을 동시에 밀고나가 전력문제해결의 전망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발전소건설에서 물길굴공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단위 일군들이 짧은 기간에 작업갱공사를 끝내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 지휘부에서는 작업갱수의 확정, 력량배치 등 필요한 조직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평안남도려단에서는 건설장에 기동한 즉시 생활가설물공사에 앞서 작업갱굴진을 위한 막토처리, 입구단면잡기, 막장설비설치 등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배정식, 김철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합리적인 갱건설방식을 선정하고 정대와 함마, 소형압축기를 리용하여 굴진공사 등을 본때있게 내밀도록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이에 따라 고헌, 박성우동무를 비롯한 성천군대대 지휘관, 전투원들은 물길굴공사경험을 살려 20㎥압축기와 권양기, 변압기설치를 앞세우고 전력계통이 형성되는족족 설비가동률을 부쩍 높이면서 본격적인 굴진전투를 벌리였다. 특히 다른 갱들보다 광차대수를 배로 늘이고 교대별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련속발파의 동음을 높이 울려나갔다.

숙천군, 양덕군대대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버럭처리이자 굴진실적이라는 자각을 안고 운반에 필요한 광차대수를 무쩍 늘이였으며 합리적인 작업방법으로 버럭상차시간을 단축하여 굴진전투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한편 자강도려단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도 공사장에 전개한 즉시 작업갱공사를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들이대였다. 김영준, 정창영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지휘관들은 자력갱생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동기와 변압기, 압축기수리정비를 다그치면서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장자강발전소, 통신군대대 돌격대원들은 처음부터 앞선 착암 및 발파방법을 넘쳐 받아들이고 맞돌이전과 질통전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굴진성과를 나날이 확대하였다.

1대대와 광림군대대 지휘관, 돌격대원들도 물길굴공사를 다그쳐 당앞에 다진 신념의 맹세를 지켜갈 충정의 일념안고 교대당 굴진실적을 높이고 운반시간을 줄이면서 버럭처리전투를 완강하게 벌려 작업갱굴진을 앞당겨 끝내는데 이바지하였다.

작업갱공사를 끝낸 여러 단위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단천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낼 드높은 열의를 안고 기본물길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류기풍

2단계 벨트콘베아신설공사 완공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에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에서 2단계 벨트콘베아신설공사를 1년 남짓한 사이에 성과적으로 완공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 공사완공이 가지는 경제적의의는 참으로 크다.

우선 탄광의 년간생산능력이 종전에 비해 20만t이나 확장되여 주체비료생산과 석탄가스화에 의한 탄소하나화학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뿐만아니라 3갱과 5갱, 6갱의 석탄운반거리가 대폭 줄어들고 이 갱들의 생산능력이 1.4배 높아진것은 물론 석탄대장광이 풍부한 곳에 한개의 갱이 새로 생겨나게 되였다.

또한 갱막장의 하차장들이 있는 곳들에 많은 석탄을 저장할수 있는 저탄장들이 건설되고 2천 수백m에 달하는 벨트갱의 전구간에 대한 영구화가 실현됨으로써 생산을 안전하게 내밀수 있게 되였다.

중앙검찰소와 석탄공업성, 탄광의 일군들을 비롯한 공사지휘부일군들은 2단계 벨트콘베아신설공사를 위한 주도세밀한 작전을 펼치고 일관을 통이 크게 밀고나갔다. 이들은 대오의 기수가 되여 앞세를 메고 기관차적역할을 하면서 자재보장을 위해 만짐을 지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탄광의 영구화중대와 녀맹돌격대, 차광수청년돌격대, 강호영청년돌격대원들은 공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척후병이라는 자각안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녀맹돌격대원들은 경도의 영구화를 위해 많은 량의 물동량운반을 제때에 하여 공사가 일정계획대로 추진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고 힘있는 후방사업으로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하여 벨트갱확장 및 영구화공사가 빠른 속도로 추진됨으로써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계획보다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지휘부일군들은 이 공사가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며 공무기지를 튼튼히 꾸려 큰 은을 내게 하였다.

저탄장과 하차장, 사갱굴진을 맡은 련합기업소당원돌격대와 탄광의 차광수청년돌격대,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박차고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전투를 들이대여 제기일에 맡겨진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에 뒤질세라 영구화중대원들은 지난해에 진행된 장거리벨트콘베아개건공사에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기초를 파고 암반에 막대동발을 시공하여 7개소의 원동소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결속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함께 탄광의 벨트갱과 력천탄광기계공장에서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벨트콘베아설치를 위한 중간틀과 상부틀, 각종 카프링 등을 제때에 제작보장하였다.

중앙검찰소, 석탄공업성, 국가계획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 체취기계공업국과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은 공사가 박력있게 진행되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여러 탄광련합기업소들의 청년돌격대들을 파견하여 8 000m에 달하는 기본굴진을 적극 추진시키였다.

2단계 벨트콘베아신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탄광에서는 석탄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게 되였다.

특파기자 오철훈

뜻깊은 을해를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를 안고 기관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 꽃피우시려

조국청사에 승리와 영광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주체106(2017)년.

끝없는 환희와 격정속에 맞고보낸 이 땅의 날과 달들이 소중히 새겨질수록 뜨거운 감회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흥건히 적셔준다.

흘러온 그 모든 낮과 밤들에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절감하였던가.

숭고한 도덕의리와 고결한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계시여 영원무궁할 주체조선의 미래를 확신하는 이 나라의 아들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혁명령도의 잘피를 번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갑시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는 마지막날에 일군들에게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열화같은 정과 사랑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비애의 바다에서 일으켜세우시고 조국번영의 새시대,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는 눈부신 기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심오한 사색과 빛나는 실천, 크나큰 심혈과 헌신이 안아온 영광과 승리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속에 맥박치는 유훈관철의 철석의 의지를 깊이 새겨안는 이 땅의 천만군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굳건히 이어나갈 드팀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력사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욱자욱이 감회깊이 돌이켜진다.

주체101(2012)년 새해의 첫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다.

지휘관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눈물속에 나날을 보내였을 동무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병사들에게 다심하신 사랑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단의 장병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화폭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억척불변의 신념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이렇게 줄기차게 이어진 혁명령도의 걸음걸음이였다.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찾으신 그날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극장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대기념비적건축물인 극장을 보시였으면 대단히 만족해하시였을것이라고 절절하게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지금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몇해전 11월 어느날 새벽이였다.

서해의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위성발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치도 자신의 숨결을 부어주시듯이 운반로케트의 동체를 정히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운반로케트를 만져보니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무조건 화올려야 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진다고, 우리의 운반로케트 《은하-3》은 민족의 넋, 애국의 넋을 안고 기어이 날아오를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를 화올려 우주정복과 리용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반드시 관철하실 철의 의지가 맥박치고있었다.

우리의 위성이 만리창공으로 솟구쳐오르던 12월의 그날 운반로케트가 날아오르는 모습이 정말 장쾌하다고, 아주 멋있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오시였던 길을 따라왔다고, 장군님께서 하신대로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위성발사장으로 향한 길에서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 고패치던 만단사연을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소식을 안으시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안겨온다.

력사의 그 순간에 우리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이 꽃핀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이 눈부시게 일떠서리라는것을 더욱 확신하였다.

그이의 성스러운 강행군길을 더듬어볼수록 격정으로 눈금이 젖어든다. 풍랑사나운 바다길과 삼복철의 무더위, 북방의 혹한 령과 엄동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력력히 새겨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을 이으시며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

희한한 새 거리와 공장들,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을 일떠세워주시고 그곳을 찾으실 때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혁명의 모든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초인간적인 의지로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신념의 기둥, 투쟁의 채찰과도 같았다.

지나온 6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 혁명령도의 자욱마다에서 이것을 심장으로 느끼고 체험했다.

찾으시는 곳, 들리시는 곳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우리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하시며 그 관철에서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하나의 공연을 보시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창작, 창조활동에 철저히 구현한 공연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고 하나의 건축물을 보시고서도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건설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격정속에 그려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의 뜻을 받드시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로고는 진정 그 얼마이던가.

우리 인민들에게 불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 길이 마음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틀어드리시려고 비바람도 웃으며 헤쳐가신 우리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길이 있어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차넘치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푸른 산, 푸른 물을 그리도 정겹게 외우시던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복구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푸르러가는 조국산천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의 뜻을 현실로 펼쳐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손길아래 이 땅에는 세인을 경탄케 하는 민족의 대경사들이 다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다.

《3.18혁명》과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9월 3일의 장쾌한 수소탄폭음, 《11월대사변》…

력사의 사변들과 더불어 눈부신 전변을 자랑하는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모습이 가슴후껍게 안겨온다.

인민극장, 릉라인민유원지,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보천산소공장,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전당, 류경안과종합병원, 혁명거리…

참으로 날마다 강해지고 날마다 더욱 번영해가는 우리 조국이다.

일일이 헤아보자고 해도 아름찬 이렇듯 빛나는 승리와 거창한 전변의 력사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의 뜻을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다.

격동의 날과 달로 이어진 지나온 6년을 돌이켜볼수록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이 땅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 빛나게 실현된 사회주의강국의 그날이 반드시 밝아오리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가슴은 세차게 높뛴다.

최세의 친솔위인을 높이 모시여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백승력치며 폭풍쳐 나아가는 주체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맥동치는 신념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유복자공장이 전하는 사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조국에 어버이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자력자강의 불씨들이 거센 불길이 되여 타번지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천만군민을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였습니다.》

주체103(2014)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의 연혁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였다.

천지윤활유공장이 창설되던 때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나날에 윤활유공업발전을 위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기계공업의 발전은 윤활유공업의 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륜전기계를 비롯한 수많은 각종 기계들, 항공운수와 우주개발수단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것이 윤활유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윤활유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치렬한 기술경쟁을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력을 강화하는데서 자체의 윤활유공업발전은 매우 절박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어려운 때였지만 사회주의강국의 앞날을 내다보시며 공장터전을 몸소 잡아주시였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윤활유공업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공장을 종합적인 윤활제생산기지로 현대화하는 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진정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수자화된 이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공장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지윤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실 때 공장의 일군들은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윤활유공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는 못했지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언제나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몸소 일떠세워주신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장군님께 매일매일 생산보고를 올린다는 충정의 마음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리신 씨앗들이 온 나라에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게 하시려는 드팀없는 의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언제나 잊지 말고 장군님의 념원을 활짝 꽃피워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주는 고귀한 가르치심이였다.

천지윤활유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결사관철함으로써 조국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계속 줄기차게 흐르게 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고결한 충정, 끝없는 헌신의 세계

간곡하게 하신 부탁

올해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평양초등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초등학원을 바라보느라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며 친부모가 되시여 육친의 사랑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희한하게 건설된 학원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아이들의 멋쟁이궁전, 먼 후날에도 손색없는 기념비적창조물을 보시는 그 시각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금치 못하시며 수령님들의 유훈의 뜻을 더욱 활짝 꽃피워가실 의지를 가다듬으시는 우리 원수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부모없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것만큼 평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설음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친부모도 줄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정을 끝없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 원아들은 온 세상이 들썩하게 행복의 노래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애국충정의 선물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양조선의 최대의 민족적명절인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울려퍼진 장엄한 불뢰성은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진두지휘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나날들을 격정속에 돌이켜보며 심장으로 새치였다.

오늘의 력사적인 쾌승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굴의 신념과 무한대한 정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

훌륭히 전변된 삼천메기공장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남기신 고결한 충정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은 우리 장군님께서 메기양어개혁의 첫삽을 박으신 뜻깊은 곳이라고,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일떠서고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걸어온 삼천메기공장의 발전로정속에는 인민들과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바쳐오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뜨겁게 어리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유산중의 하나인 삼천메기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꽃피우는 사업인 동시에 장군님의 높으신 권위를 보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였다.

공장을 돌아보시며 만족에 대만족이라고 격정에 겨워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대규모의 삼천메기공장을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실현하고 장군님의 권위를 보위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기층당조직의 역할을 높이는데 기적창조의 비결이 있다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초급당의 위치와 임무를 명확히 밝혀주시였으며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초급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급당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우리 이천군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하여서도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초급당의 위치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급당의 전투력이자 우리 당의 전투력이며 초급당을 강화하는데 전당강화의 지름길이 있다. 초급당조직들을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다지고 그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자는것이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연설을 당사업실천의 교과서로,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군안의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큰 힘을 넣었다. 우리가 당에서 그토록 높이 평가하고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준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지난 1년간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은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초급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여나갈 때 당정책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고 대중을 위훈의 창조자로 키울수 있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올해투쟁을 통하여 뼈속깊이 새긴 철리이다.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해당 단위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한것이다.

초급당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본전투단위이다. 하지만 지시나 하고 호소나 하여서는 당정책을 제대로 관철할수 없다. 초급당이 당정책을 환히 꿰들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 짜고들어야 그 관철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경제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제일 걸린 문제는 자재나 로력, 전기나 식량이 부족한것보다 일부 일군들이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에서 아무리 옳은 정책을 제시하여도 응당한 결실을 맺을수 없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인 군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명시한 창성련석회의정신을 초급당일군들모두가 환히 꿰들고 그에 기초하여 지방공업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가능성과 예비를 찾도록 하는 사업을 일관하게 내밀었다. 이와 함께 모든 초급당조직들이 지방의 특성을 잘 살릴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자력자강의 토대를 구축하고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군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우선적과제로 내세우며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초급당조직들이 당정책에서 군이 나아갈 방도를 찾고 한결같이 발동된 결과 군내 사업에서는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군에서는 수백kW능력의 자체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지방산업공장들을 돌리고 자체의 힘으로 해마다 수백정보의 산림을 조성하고있으며 군에 무려진 자력경생기지들에서 나오는 자재로 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또한 읍농장과 송정리, 문동리, 장동리를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이에 토대하여 기초식품공장을 활성화하고있으며 덩지큰 남새온실에서 남새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에 이바지하고있다. 당에서 준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금 군에서는 이천군민발전소건설도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을 통하여 우리는 초급당조직들이 당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해나가도록 할 때 아무리 시련이 겹쌓이고 조건이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였다.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또한 사상사업을 앞세우고 사상전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 군안의 인민들의 애국심을 세차게 분출시키도록 한것이다.

군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려나가는데서 자원도 중요하고 지리적환경도 중요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군의 주인들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상태이다. 사상이 모든것을 결정한다. 당조직들이 대중의 정신력을 총분출시키면 못해낼 일이 없고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해나가는데서 걸린 고리는 긴장한 로력과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는것이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그 방도를 고향땅을 사랑하는 군안의 인민들의 애국적열의를 발동시키는데서 찾고 초급당조직들이 사상공세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초급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강원도사람들답게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수놓으며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가는데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치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초급당일군들자신이 건설장이나 개건전투장, 포전들에 달려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고 이신작칙의 투쟁기풍을 발휘하면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결과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힘과 지혜가 배가되여 난관극복의 보술이 쏟아져나오게 되였고 제기되는 과업들도 단숨에 해제끼게 되였다.

애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대중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올해에만도 군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불과 몇달사이에 물놀이장과 체육관, 상점들과 식당, 백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봉사망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의약품공급소와 군인민병원, 일용품공장과 800세대의 살림집을 개건보수하였으며 읍지구의 건물들에 야외불장식을 하여 밤마다 불야경을 펼쳐놓고있다. 하기에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변모되여가는 군소재지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으며 군내 인민들은 오늘의 긍지높은 현실을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열정에 더욱 넘쳐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놓은것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으며 애로와 난관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군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주저하거나 동요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경험은 초급당조직들이 사상을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보석같은 공장에, 항로에, 조국애를 충족밥시킬 때 자기 앞길을 능히 개척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또한 모든 초급당위원장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도록 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여기고 제일로 사랑하시였으며 오늘 우리 당이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정히 받드는 인민을 위해 초급당위원장들이 있다. 초급당위원장들이 고생하는것만큼, 진정을 바치는것만큼 인민들의 마음은 당중앙위원회뜨락에 피줄처럼 이어지게 되며 그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끊임이 울리게 된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초급당위원장들이 인민적풍모를 지닌 참된 충복이 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혁명적군중관을 지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하고 례의있게 하도록 늘 교양하였으며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초급당위원장들을 높이 평가하고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그들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근기있게 진행하였다. 공장 초급당위원장들과 리당위원장들이 종업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정형편을 수시로 알아보고 생활상애로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도록 하였으며 전쟁로병들과 교원, 의사들을 위한 날을 정해놓고 그들에 대한 어려가지 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인민들의 불편을 가시기 위한 옥계천다리건설을 발기하고 일군들이 남먼저 떨쳐나서도록 하는것과 함께 군중과 어울려 노래도 부르고 대중체육활동에도 적극 참가하도록 한 과정은 그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인생관화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오늘 힘든 일은 자기가 도맡아나서고 혜택은 인민들에게 먼저 돌려주는것은 우리 군안의 초급당위원장들의 풍모로 되고있다. 그들속에는 제대군인들과 부모없는 청년들의 결혼상도 차려주고 친혈육의 정으로 다심하게 돌봐주고있는 일군도 있으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도록 유치원마당에 잔디를 심어주고 지능놀이실을 번듯하게 꾸려준 일군도 있다.

우리 군이 올해에 증건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비약과 혁신을 안아올수 있은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그 어떤 신비한 힘이 가져온것도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초급당일군들과 인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여 투쟁한 결과이다. 현실은 초급당조직들이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가식도 꾸밈도 없이 인민을 위해 진정을 바치는것만큼 모든 일이 잘되여나간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사실 우리 군과 같이 어려운 조건에서 지방경제를 획기적으로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계속 높여나간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은 초급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그러자면 초급당일군들의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치리론수준이 높고 다방면적인 지식과 능숙한 군중공작방법,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소유한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혁신의 봉화가 타오르고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기마련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바로 실생활을 통하여 다시금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지나온 투쟁의 나날들을 되새겨볼수록 강원도인민들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온 나라가 강원도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우리 군안의 모든 초급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지금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의도대로 초급당과 당세포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나감으로써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층당조직들을 더욱 강화해나감으로써 이천군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훌륭히 꾸려갈것이다.

이천군당위원회 위원장
리 경 철

나라쌀독을 책임진 자각안고 다음해농사차비에 력량을 집중하자

기계화비중을 높이는 사업을 중시하고 내밀어

평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평안남도안의 드넓은 협동벌이 다음해농사차비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심장으로 받들고 농사차비를 본때있게 다그쳐 다음해 알곡고지점령에서 기어이 승전포성을 울리자.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이 드높은 기세와 앙양된 열의는 다수확을 담보하는 빈틈없는 농사차비작전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특히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는것으로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려는 이들의 혁신적이고 완강한 사업기풍은 매우 시사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본격적으로 내밀어 빠른 기간에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60-70%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도에서는 공화국창건 70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다음해에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넘쳐 수행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한 기본방도는 무엇인가. 도일군들이 지난 시기의 농사경험과 교훈을 종합분석해보면서 다시금 찾게 된 교훈이 있다.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는 바로 여기에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이다.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많은 협동농장들의 경험은 기계화비중을 높일 때 바른 영농공정의 시기성은 물론 작업의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으며 이것은 곧 알곡증산에로 이어진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또한 최근년간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농사열풍속에 널리 도입되고있는 여러가지 앞선 영농방법들도 기계화가 안받침될 때 더욱 큰 은을 낼수 있었던것이다.

지난 시기의 농사경험을 놓고보아도 알곡증수봉에서 기계화가 차지하는 몫이 적지 않다. 특히 육종과 비료, 관개물에 비해볼 때 농기계비중이 제일 높다는 사실은 일군들로 하여금 농산작업의 기계화실현을 위한 사업이 그 무엇보다도 중시하여야 할 문제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해주었다.

일군들은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떨쳐나섰다.

즉시 도안의 농기계부문 기술자, 기능공, 기계화초병들이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에 맞게 창안한 각종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진행되였다. 큰모씨뿌리는기계, 비닐자르는기계, 삼각모내는기계, 밀보리종합파종기, 알비료만드는기계 등 10여종의 농기계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조하는것과 함께 수천대를 생산하여 다음해농사에 받아들이기 위한 대담한 목표가 세워졌다.

물론 짧은 기간에 이 많은 농기계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한다는것은 아름찬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뼈속깊이 새긴 일군들은 이 사업의 성과적담보를 도안의 기계화초병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는데서 찾았다.

지난 8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 알곡대풍을 이룩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것을 당앞에 맹세다진 도안의 뜨락또르운전수들이였다. 더우기 도안의 부자뜨락또르운전수, 부부뜨락또르운전수, 형제뜨락또르운전수, 처녀뜨락또르운전수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애국적소행들은 사람들을 뜨겁게 감동시키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제44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 능률적이고 현실조건에 맞는 농기계들을 출품한 수많은 창안자들속에는 농기계부문의 기술자들이 많았다. 또한 경험많은 오펜 운전수, 운전공으로부터 정원군농기계작업소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 강정옥동무를 비롯한 최녀창안자들도 있었다.

이것은 도안의 기계화초병들속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고조시켜나간다면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다는 신심을 더해주었다.

일군들은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작전하고 실천해나갔다.

무엇보다도 기계화초병들속에 우리에게 믿을것은 자기 힘밖에 없으며 자강력이 제일 큰 힘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침입식정치사업을 들이대면서 그들을 농기계제작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시, 군농기계작업소와 농기구공장들에 전투과지를 정한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기술적문제도 토의하고 그들과 함께 땀도 흘리면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한태의 농기계를 제작해도 자기 지방의 지형조건에 맞는 농기계로 완성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그리하여 덕천시, 회창군, 증산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는 씨뿌리기전까지 계획한 농기계제작을 완전히 결속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는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뜨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는것은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선차적인 문제였다. 자강력이 제일이고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뼈에 새긴 일군들은 이 사업을 단순한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에서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뜨락또르에 벼겨가스화를 실현하여 많은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그 가동률을 높인 대동군농기계작업소의 좋은 경험을 널리 소개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틀어 조직하였다.

벼겨가스를 리용하여 논갈이를 진행하는 뜨락또르의 작업모습은 참가자모두에게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뼈에 새기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였다. 결과 많은 협동농장들에서 이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다음해농사에서 기어이 풍작혼을 부를 높은 목표밑에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는 이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박영진

계속혁신의 기상 나래치는 전야

배천군에서

배천땅에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다음해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알곡증산의 자랑찬 성과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떨쳐주신 황금벌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가자!

군일군들은 이런 불타는 결의를 안고 농업근로자들을 다음해농사차비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의 일손마다에서 불이 일고있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그대로 자랑찬 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각 농장들에서 종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특히 유기질비료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력이 낮은 포전들에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실속있게 세우고있다. 이미 구뎅이파기가 끝난데 이어 어기에 넣을 질좋은 유기질비료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연백호물길정리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올해농사짓을 돌이켜보면서 물문제를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풀겠다는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여러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승벽을 다투며 전투속도를 비상히 높이였다.

이들은 쌀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려는 열의밑에 하루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였고 물길을 든든히 보호하기 위한 장석보수공사도 내밀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단 며칠동안에 물길이 번듯하게 정리되였다.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분발해나선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력을 더 높이기 위한 유기질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고있다. 농장들에서 너탄과 진거름을 비롯한 원천들을 최대로 찾아 유기질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군안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가두인민반원들도 모두 떨쳐나 유기질비료생산에 애국의 땀을 바치고있다. 그리하여 군적인 유기질비료생산이 일정계획보다 앞서나가고있는 속에 생물활성퇴비생산이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졌다.

모판자재준비사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이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부식토와 활창대, 비닐박막을 비롯한 자재준비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결과 모판자재확보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농기계와 농기구준비사업이 혁신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군일군들은 다음해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더 늘이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농장들에서는 이동식벼종합탈곡기제작에 필요한 자재준비를 다그치는것과 동시에 종전에 만든 설비들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기관, 기업소와 가두인민반들에서도 틀들어 마련한 많은 중소농기구들을 각 농장들에 보내주었다.

황금벌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가려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적열정에 의해 군적인 다음해농사차비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과학농사의 주인이 되도록

구성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낡은 경험을 고집하면서 과학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고 과학연구성과들을 농업생산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성시일군들의 다음해농사차비작전에서 눈길을 끄는것은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사연이 있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림에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올해 정초부터 시의 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앞선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하지만 가을의 결실은 기대했던것과는 달랐다.

실례가 있었다. 올해에 시의 일군들은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높은 목표밑에 미량원소복합비료 《수성천1》호를 리용하기 위한 작전을 폈다. 이 비료는 농작물의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빛합성능력과 뿌리활성을 높여준다. 특히 적은 화학비료를 가지고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거둘수 있는것이 또 다른 우점이였다. 리용방법도 매우 간단하였다.

시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으며 그 리용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알려주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상단남새전문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는 이 비료를 기술적요구대로 리용한 결과 지난 시기에 비해 논벼는 정보당 평균 1.5t, 강냉이는 2t이나 증수하였다. 원진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도 토심이 얕고 모래기가 많은 땅에서 콩을 정보당 수백kg이나 더 수확하였다. 반면에 일부 단위들에서는 정보당 알곡수확고가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농장원들이 이 비료에 대한 파악이 없다는데로부터 그것을 적극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데 있었다. 보다 중요한것은 시의 농사를 책임진 일군들이 이 비료의 도입과정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옳게 작전하고 이끌지 못한데 있었다.

알곡증산의 가장 큰 예비는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있다. 그래야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과학기술성과가 응당한 결실을 볼수 있다. 이런 관점밑에 시의 일군들은 농장원모두를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다음해농사차비의 중심고리로 내세웠다.

우선 과학농사와 관련한 다매체편집물을 틀들어 마련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 편집물에는 과학적인 비료치기방법을 비롯하여 선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습득하는데 절실한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안받침되여있다. 특히 올해 알곡생산에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내용이 많이 취급되였으로 하여 그 실효성은 매우 컸다. 올해농사에서 다수확을 낸 모범적인 농장원들의 경험발표 역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였다.

농장원들을 과학농사의 주인들로 준비시키기 위해 시일군들은 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아는것만큼 과학농사를 지도할수 있고 그래야 농장원들에게 과학농사의 참다운 주인이라는 자각을 심어줄수 있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시에서는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농업과학기술자료들을 작업반초급일군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다. 결과 어디서나 과학농사열풍이 더욱 드세차게 일었다.

알곡증수의 가장 큰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농사작전을 예견성있게 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혁신적이다.

리충일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거름생산실적이자 알곡증산성과이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룡천군 명고남새전문협동농장 제3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질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남면지 전투장을 타고앉은 퇴학근작업반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농장원들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가고있다.

과학농사의 성과여부도 높은 지력에 의해 담보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2분조의 농장원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맡겨진 거름생산과제를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4분조의 농장원들도 다음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불같은 각오를 안고 떨쳐나 거름생산실적을 부쩍 높여나가고있다. 그뒤를 5, 3, 1분조들이 바싹 따라서고있다. 결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거름이 생산되고있다.

성과가 오를수록 작업반초급일군들은 거름생산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들을 제때에 일반화하고있다. 그리고 생산된 거름을 포전에 운반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진행해나가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믿음직하게 지켜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애국의 더운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작업반적인 거름생산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자력갱생무쇠철마의 우렁찬 동음에 발맞춰 다음해농사차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앞질러 진행한 생물활성퇴비생산

송림시 신성남새전문협동농장 제3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송림시 신성남새전문협동농장 제3작업반에서 다음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해 농사차비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힘을 넣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모든 분조들에서 지난 시기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생물활성퇴비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한것이다.

남알털기전투를 결속하면서 홍광철작업반장은 다음해농사차비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던중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위한 사업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으로 보아 생물활성퇴비를 많이 리용한 결과는 대단히 좋았다. 토지가 개량되여 지력이 높아졌다. 특히 토양의 무식질함량이 높아진것은 물론 농작물의 뿌리발육이 좋아지고 질소, 린, 카리를 비롯한 영양원소들에 대한 흡수률도 나무랄데 없었다. 이것은 질좋은 생물활성퇴비를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낼 때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생물활성퇴비의 질보장이자 알곡증산이다. 이것을 명심한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모든 분조들에서 생물활성퇴비생산조직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작업반에서는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질좋은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자면 원료준비도 잘해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온도보장이였다. 추운 겨울에는 생물활성퇴비생산기일이 오랜것은 물론 품도 더 많이 들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작업반에서는 남알털기가 마감단계에 들어서면 로력조직을 더욱 면밀하게 짜고들어 생물활성퇴비생산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미리 준비를 잘해놓았다가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생산한 생물활성퇴비는 질이 높았다. 분조들에서는 벼짚 혹은 북데기에 종균과 물거름, 소석회를 골고루 섞어 일정한 규모로 쌓아놓았다. 이렇게 하니 며칠만에 그속에서 열이 나면서 생물활성퇴비로 되기 시작하였다.

좋은 점이 있었다. 우선 온도를 보장하는데 크게 품을 들이지 않아도 되였다. 지난 시기 추운 겨울철에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자면 온도보장에 많은 품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앞당겨 시작하니 필요한 온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었다. 특히 생물활성퇴비생산기일이 짧아진것은 물론 그 질이 높아진것은 더욱 좋았다.

작업반의 모든 농장원들은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실어내는데 알곡증수의 또 하나의 방도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질좋은 생물활성퇴비를 생산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나섰다.

생물활성퇴비생산에 힘을 넣어 다음해농사의 성과를 담보해나가고있는 이곳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본새는 훌륭하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

대성산혁명렬사릉과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대회합으로 빛내인 긍지를 안고 대회참가자들이 뜻깊은 평양참관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다.

대회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선렬들의 혁명적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선군총대의 고향 평천혁명사적지를 찾은 대회참가자들은 사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해방된 조국땅에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자립적국방공업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위적국방건설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의 국방공업을 강력한 혁명공업으로 다져준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은 믿음직하게 담보되고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대회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병군술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숭엄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강철의 령장, 희세의 전설적영웅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다시금 새겨안았다.

수령의 명령을 심장으로 받들고 대오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간 근위부대장병들의 투쟁위훈을 전하는 근위부대관을 비롯한 여러 관들에서 그들은 전화의 영웅들처럼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당의 혁심, 당정책관철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앞으로

노래 《자력갱생행진곡》을 들으며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혁명적열정과 전투적랑만이 차넘치는 명곡은 전진하는 대오의 기치와도 같이 사람들을 투쟁과 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의 총진군길을 힘차게 달려온 우리 인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노래가 있다.

《자력갱생행진곡》.

노래가 나온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우리 인민모두가 이 노래를 잊지 않고 가슴속에 새기고있는것은 가요에 주체조선의 투쟁방식,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맥맥히 굽이치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력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력사입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

노래 《자력갱생행진곡》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온 1960년대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영웅적투쟁과 혁명적랑만을 진실하게 반영한 훌륭한 음악작품들중의 하나이다.

통무어 나가자 붉은기 펄펄 날리며
꽃피는 락원을 다져 앞으로
폭풍도 시련도 가슴으로 헤치고
내 살림 내 손으로 꾸려나간다
자력갱생
…

들으면 들을수록 혁신으로 밤이 깊고 날이 밝던 그날의 웅음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고 무르면 무를수록 천리마시대의 벅찬 숨결이 느껴지는 이 노래에는 위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따라 자기의 힘과 지혜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온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가 집약적으로 비껴있다.

혁명의 요구따라 변주먹으로 록한도 만들어내던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 불사신과도 같은 천리마시대 인간들이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꿋꿋이 이어지는 조국땅 어디서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고 날마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노래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으로 들끓던 천리마시대의 헌신과 그 시대 인간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창조와 혁신의 진군가로 널리 불리우며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할수 있었다.

광만적이고도 신심에 넘친 이 노래의 서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폭풍도 우뢰도, 사나운 격랑도 두려움없이 헤쳐온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신념과 의지의 반영이다.

높은 호소성과 강한 전취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노래는 가사의 사상적내용에 맞게 박력있는 선률형상으로 천리마시대의 장엄한 기상을 인상깊게 펼쳐보인다. 노래의 곡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가는 긍지와 격정이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씩씩하고 기백있는 행진곡적성격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면서도 류창하고 광만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무게있고 전취적으로 전개되기도 하는 선률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전진해나가려는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한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우리 인민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생동하게 반영한 이 노래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시대정신을 옳게 구현하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함에 대한 당의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데 직극 기여하였다.

음악의 생명력은 시대의 본질과 인민대중의 지향, 그들의 념원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반영하는데 있다.

이 땅에 수놓아진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력사와 더불어 울려퍼진 《자력갱생행진곡》, 조선의 《자력갱생행진곡》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의 구현이며 우리 조국의 휘황한 미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힘찬 노래이다.

노래 《자력갱생행진곡》은 세기를 앞당겨온 전세대 혁명가들의 긍지높은 심장의 웨침인 동시에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백배해주는 투쟁의 진군가이다.

자력갱생은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시종일관 견지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 투쟁방식이다.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우리의 자력갱생이 결코 난관이나 시련을 극복하고 부족한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힘이였음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를 받들어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노래는 장구한 혁명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방식을 음악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일반화한것으로 하여 오늘도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메아리치고있다.

…
아 천리마의 높은 기상 떨치며
혁명의 아들딸들 힘차게 나간다
힘차게 나간다

자력갱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온 세계에 앞서나가는 민족자존의 정신이며 첨단돌파의 정신이다.

조선혁명의 장구한 투쟁실천속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억세게 이어받은 혁명의 계승자들이 오늘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들로 자라고있다.

자력갱생!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떠밀어온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이 무엇이며 당과 수령이 구상하고 결심하면 자기의 힘으로 기어이 실천하고야마는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의 창조본때가 어떤것인가를 노래 《자력갱생행진곡》은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혁명의 절실한 요구가 통속적으로 잘 반영되여있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이 담겨진 노래 《자력갱생행진곡》은 오늘도 시대를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미제의 핵공갈위협을 종식시키며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과 혁명적대응전략을 밝혀주시고 자주의 기치, 자력갱생기치드높이 자기의 힘을 더욱 강화하여 적들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과 비렬한 제재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자력갱생에 관한 사상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심장깊이 심어주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추동하는데서 《자력갱생행진곡》과 같은 노래들은 참으로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된다.

시대정신을 노래하고 인민대중의 삶과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명곡의 생명력은 세월의 흐름속에 더욱 커진다.

이 노래를 들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 자력자강의 힘을 키워주시며 혁명의 년대마다 통쾌한 현전현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이어갈 불타는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튼튼한 자립적경제토대가 있고 우리 당이 키운 과학지대군과 우리 당의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군대와 인민, 자력갱생의 투쟁전통이 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웃으며 헤쳐갈것이며 사회주의승리봉에 혁명의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고야말것이다.

우 정 혁

우리 당의 사회과학정책을 높이 받들어

사회과학원에서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사회과학원은 우리 당의 중요한 사상리론기관, 나라의 종합적인 사회과학연구중심기지로서의 자기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원은 우리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당의 사회과학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적극 옹호보위하고 귀중한 과학연구성과들로 나라와 민족의 정신문화적재보를 더욱 풍부히 함으로써 우리 당의 사상리론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사회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독창성과 정당성, 생활력을 힘있게 론증하고 널리 해설선전하였으며 각종 리론도서와 사전들을 집필편찬하는것과 함께 민족고전번역사업과 력사유적들을 발굴고증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우리의 사회과학을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만한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고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빛내여왔다.

사회과학원에서는 김일성상계관도서인 《혁명과 건설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해설》, 인민상계관도서인 《조선로동당정책사》 그리고 《김일성주의총서》, 《불멸의 주체사상》 등 국보적인 사상리론해설도서들을 집필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위대성을 내외에 선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력사》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혁명력사》, 《조선로동당력사》, 《항일무장투쟁사》 등 수많은 도서들도 집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그 보물고를 새로운 사상리론적내용들로 더욱 풍부화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중위있는 도서들을 새로 집필하였다. 그리고 선군사상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과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는 소백수골의 뛰여난 절경들을 소백수골8경으로 새로 명명하는 문제, 우리 나라의 표준시간을 다시 정하는 문제 등 사회정치적의의가 큰 문제들에 대한 과학연구활동을 활발히 벌렸으며 지난 수십년간 많은 기념도서를 집필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가지는 력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를 비롯한 수많은 토론회들을 의의있게 조직진행하여 사회과학연구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사회과학원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부문과학연구성과를 반영한 가치있는 도서들과 사전들을 편찬하고 민족고전번역과 력사유적유물들을 발굴고증하는것이 사회과학원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조선전사》, 《조선철학전사》를 비롯한 도서들과 《백두산3대장군혁명력사학습사전》, 《경제사전》, 《법률사전》, 《조선말대사전》(증보판)을 비롯한 많은 부문별사전들을 성과적으로 집필편찬하였다.

또한 조선봉건왕조실록과 《비변사등록》,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고전들을 번역하였다.

현재 《팔만대장경》과 《입성록》번역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고고학의 대승리이라고 높이 평가하신 단군릉발굴사업에 크게 기여한 고고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최근에 만도 과선시 선봉지구에서 원시 및 고대시기 문화유적들을 발굴한것을 비롯하여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많은 유적유물들을 새로 발굴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내외에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사회과학원에서는 우리의 혁명실천에 필요한 사회과학분야들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함께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 사회심리학, 컴퓨터언어학을 비롯하여 새로운 경제과학, 응용과학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사회과학원의 일군들과 학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열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였다.

국가국어사정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전당에서 리용할 《대중백과》사전을 집필편찬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으며 현재 1만여개의 새 용어를 보충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사회과학정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가르치심대로 사회과학원에서는 홈페지를 새로 개설하고 정상운영함으로써 사회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정보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에는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나라의 사회과학발전을 위하여 바쳐온 뜨거운 충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금 사회과학원안의 전체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주체조선의 심장인 평양을 종합적으로 소개선전하는 책들을 비롯한 중요도서집필과 함께 수십건의 과학연구과제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를 벌리고있다.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제3차 전국사회과학자대회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들의 투쟁은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룡

사리원학생소년궁전건설 적극 추진

황해북도에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리원학생소년궁전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소조실건물과 체육관물조공사가 끝나고 극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리원학생소년궁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우리 학생소년들에게 안겨주시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숭고한 결정체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리원학생소년궁전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도에서는 도급기관의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건설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리원문, 김일영동무를 비롯한 건설을 책임진 일군들은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것을 깊이 간직하고 건설초기부터 대담하고 능숙한 지휘로 공사전반을 힘있게 내밀었다. 이들은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대중의 앞장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일군들은 도급, 시급건설단위들을 공사에 동원하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소년궁전건설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선전,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속에 소년궁전건설장에서는 날에 날마다 혁신이 창조되였다.

황해북도도시건설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제일 어려운 공사대상을 맡아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려단일군들은 현장에 전투지휘부를 전개하고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이들은 당의 의도대로 건설기계와 기공구를 현대화하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한편 대대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려단에서는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여 철관휘틀대신 새로운 휘틀을 제작하여 타임속도를 종전보다 훨씬 높이였다.

기술대대에서는 새로운 혼합기를 제작하여 공사에 필요한 타임물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진동다짐기와 철근절단기도 만들어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체육관물조공사를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극장공사를 동시에 내밀어 공사전반을 입정계획대로 추진하였다.

소조실건물건설을 맡은 사리원시건설사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사업소일군들은 공사의 단계별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시공을 맡은 일군들은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건설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함으로써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또한 방대한 상수 및 난방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그날 계획은 그날로 무조건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건축면적이 수천㎡ 되는 소조실건물 골조공사를 계획대로 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리원시공공건물보수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따라앉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높이 공사속도를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리원시안의 수많은 녀맹원들도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건설장에 달려나와 자재운반 등 맡겨진 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나갈 한마음안고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소년궁전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특파기자 신 경 섭

현장에서 호평받는 연구성과

청진광산금속대학에서

청진광산금속대학의 과학연구집단이 최근 현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여 현장로동계급의 호평을 받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김광수학장, 오수철 과학연구과 과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대학의 연구력량이 현실에서 걸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여기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의 기술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것이다.

대학의 일군들은 경성도자기공장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고있는 박철은 강좌장, 서봉길연구사가 수입에 의존하던 도자기소성용갑자를 완전히 우리의것으로 바꾸는 연구사업에서부터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그들을 적극 밀어주었다.

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달라붙으니 연구방향도 새롭게 정해졌고 혁신적인 방법도 나올수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집단은 도자기제품을 소성하는데서 당만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갑자의 재료를 도안의 구체적인 현실조건에 맞게 고령석과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여 새롭게 만들었다.

그들이 새로운 재료로 만든 근청석질갑자는 수입제품보다 수명이 두배 더 길어 생산자들이 무척 좋아하였다. 이 성과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과학연구집단성원모두를 더욱 분발시키였다.

그후 광물공학연구실의 조금호실장, 박민철연구사 그리고 물리강좌의 김형철교원이 수입에 의존하던 그리스대신 흑연고운윤활제를 새로 개발하여 경성도자기공장의 소성로용대차바퀴베아링에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련이어 그들은 제철소들에서 많이 나오는 산화철을 리용한 고온복사체도 연구개발하여 경성도자기공장의 소성로에 도입함으로써 소성시간을 훨씬 단축하고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전력과 로력을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청진광산금속대학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백 성 근

오늘의 시대는 이런 결사관철의 투사들을 부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나라의 수상운수발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부두가 남포시에 소문없이 일떠섰다.

착공한지 불과 넉달 남짓한 사이에 수천㎥가 넘는 드넓은 부두가 확장되여 1만t급이상의 대형짐배들이 정박하는 화폭이 펼쳐졌다.

수천t 저장능력의 은백색탕크도 튼튼히 불어앉았다. 갈대만이 무성하던 습지대가 천지개벽하여 떼고분소리 정답게 울려퍼지고 대형짐배들이 유유히 오가는 모습은 사회주의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과시하는 장쾌한 광경이다.

전문적인 항만건설단위도 아닌 대흥지도국 아래단위와 남포선박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처럼 거창한 창조물을 단 몇달만에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해 누구나 놀라고있으며 그 비결을 알고싶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기적은 과연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불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올해초였다.

얼음장이 두텁게 깔린 대동강에 땔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험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이윽토록 동쪽우에 서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부두건설과 탕크확장공사를 최종적으로 결심해야 하는 그들은 추운 날씨마저 의식하지 못하는듯 하였다.

방대한 공사량과 엄청난 자재소요량, 수상작업용중장비문제, 기술력량문제…

모든 일이 생소했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내야 하였다.

대흥지도국 아래단위 사장인 김영춘동무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간단치 않은 일감이야. 걸음걸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거던.》

남포선박관리소 소장 김호현동무가 낮으나 확신성있는 어조로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힘있는 구호를 제시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 이 힘으로 못해낼 일이 있겠습니까.》

두 일군은 억세게 두손을 마주잡았다.

아무리 항만건설작업이 어렵다고 하여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죽으나사나 부두확장공사를 완공하고야말겠다는 산악같은 의지와 신념이 심장속에 들어앉는 순간이였다.

드디여 힘찬 돌격구령이 내려졌고 감탕과기건두와 대형부재생산, 탕크확장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졌다. 막돌과 흔석, 세멘트와 철판 등 건설자재들을 실은 화물자동차들이 꼬리를 물었고 대형준설선이 퍼내는 감탕은 산을 이루었다.

펭남배수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10t, 20t짜리 대형부재들을 련속 생산해나갔다.

어름에 들어서면서 공사조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탕크조립공사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였다.

철판들이 달아올라 랑크안의 온도는 40℃를 오르내리는데 용접호광과 가스로 하여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용접봉 한대를 태우는 잠간사이에도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였다.

그러나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한 선박관리소의 종업원들과 펭남배수리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무더위와 가스, 플러드는 졸음을 이겨내며 용접면을 벗지 않았고 한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용접의 불보라를 날리였다.

이 나날에 소비한 용접봉만 하여도 수십t에 달한다고 한다.

선박관리소의 종업원들은 물우에 띄운 배목우에 누워 기둥과 보를 련결하는 용접작업을 들이댔으며 밤이 되여 잘 보이지 않으면 광부들이 쓰는 안전등이 달린 로동안전모를 쓰고 전투를 계속했다.

바람이 더지고 파도가 이는 위험속에서도 수십개의 기둥과 수백개의 보를 련결하였으니 그 용감성과 희생성앞에 누구인들 감동되지 않으랴.

펭남배수리공장 부지배인 리명국동무는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을 탐구하느라 사색을 거듭하였다.

남포항만건설사업소의 로동자들도 일정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일손을 놓지 않았다.

공사를 하루빨리 완공하고 위대한 당에 충정의 보고를 드릴 그 하나의 열망만이 높뛰는 전투장이였다.

바람과 비, 파도와 무더위, 부족되는 자재와 연료 그 모든 애로와 난관을 완강하게 극복하며 줄기찬 공격전을 들이댄 자력갱생선구자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해 드디여 단 몇달만에 기적이 창조되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천리 격랑도 불속 만리도 주저없이 헤쳐나가는 정신력의 강자들은 마침내 승전의 개가를 높이 올리였다.

위훈의 자욱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검푸른 물속에 뿌리내리고 펼쳐진 드넓은 부두가에 서있느라면 과연 이곳이 몇달전만 하여도 수만㎥의 감탕을 퍼낸 강한 목판이였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밑에 30m깊이로 박힌 수십개의 철통기둥이 있으며 그우에 수백개에 달하는 대형부재가 역척같이 결합되여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사장 김영춘동무는 자재보장을 전적으로 맡아 해결하기 위해 앓는 몸으로 수백리 밤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리군 하였고 건설상무성원들은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깨끗한 량심을 이 부두밑에 묻었다.

남포선박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사의 주인이라는 립장에서 누구보다 아글타글하였다.

항만건설경험은 전혀 없었지만 그들은 조건타발, 기술타발을 물리쳤고 자기가 맡은 일을 알심있게 하면서 건설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갔다.

소장 김호현, 당세포위원장 홍광혁동무들이 앞세울 때고 돌격로를 열어나갈 때 다른 동무들은 서로 어깨겯고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쳤다.

녀성종업원들도 후방사업보장을 위해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았고 가족들도 성심성의껏 공사를 지원하였다.

방송선전차를 앞세우고 남포시예술단 성원들이 건설장에 찾아왔을 때였다.

건설상무성원들과 관리소의 일군들이 한 일군을 에워싸고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였다. 건설장에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소리없이 나타나 도움을 준 일군, 수상작업용중장비들과 자재들이 제때에 도착할수 있게 적극 떠밀어준데 대한 소박한 인사였다.

그러나 남포시당위원회 일군인 김우연동무는 응당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손을 내저었다.

그 어떤 평가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조국의 재부를 마련하기 위해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들의 마음은 이처럼 고결하다.

어찌 그뿐이랴.

기중기운전공들이며 로력혁신자들, 금요일마다 현장에 달려나와 물질로력적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흥지도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남모르는 헌신에 대해 우리 여기에 다 적지 못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며 또 하나의 자력갱생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이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온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우리는 확신하고있다.

내 나라 어디에나 이들처럼 자력자강의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뚫고헤치며 애국의 한길로 매진하는 참된 애국자들, 자력갱생선구자들이 많고많아 조국의 재부가 늘어나고 만리마시대의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는것이라고.

특파기자 주 창 선

우리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는 다수확 벼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지혜를 합쳐간다.

—농업연구원 벼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교육의 정보화실현에서 창조된 훌륭한 경험

락랑구역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세계적수준의 재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올해 2월 락랑구역에서는 뜸뜸이에 의한 일제시험으로 구역안의 고급중학교 졸업학년학생들의 졸업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뜸뜸이에 의한 일제시험을 전국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시험은 졸업시험인 동시에 구역안의 졸업학년학생들의 상급학교추천과 7.15최우등상수상자선발을 위한 실력관정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된 이 일제시험은 최근 락랑구역에서 힘있게 추진된 교육의 정보화사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교육의 정보화실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락랑구역일군들이 거둔 성과는 교육의 정보화가 교육발전에서 가지는 의의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주며 다른 단위들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경험을 주고있다.

목표도 방도도 당정책에 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단위들을 보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관철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는 일군들이 있다.

락랑구역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일본새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두해전 모든 학교들이 국가망에 가입하며 교육의 정보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되였을 때였다.

구역의 일군들은 당정책을 즉시집행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우선 현시기 제시되는 우리 당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당정책으로 무장하여야 그 정당성을 심장에 새기고 옳은 해결방도를 찾을수 있기때문이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으로부터 교육부문을 맡아보는 모든 일군들이 당정책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고 그 관철을 위한 방도를 탐구하는데 사색을 기울였다.

당에서 왜 그토록 교육의 정보화를 중시하며 이것이 우리의 교육발전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파고들수록 심원한 뜻이 안겨왔다.

여기에는 우리 교육의 현 실태와 세계교육발전추세를 깊이 통찰하고 우리의 주체교육을 더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키려는 당의 웅대한 구상과 의지가 담겨져있었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 세기 교육의 면모가 비껴있었다.

구역의 일군들은 당정책의 구절구절을 학습하면서 흥분으로 가슴을 뛰였다. 교육의 정보화실현에 우리 교육발전의 오늘과 래일이 달려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 이들은 이것을 무조건 집행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였다. 이런 관점에서 이들은 망가입과 관련한 기술적내용도 파고들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도 세워나갔다.

이에 기초하여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교육부문 일군들의 협의회를 여러차례 조직하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먼저 구역안의 수십개에 달하는 모든 학교, 유치원들에까지 빛섬유케블을 늘여 국가망에 가입하는것을 당면과제로 내세웠다. 모든것이 통이 크게 작전되였다.

목표도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높이에서 뚜렷이 세워지고 그에 따르는 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이 안받침되여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구역안의 모든 학교, 유치원들에서 빛섬유케블에 의한 국가망가입을 완전히 실현하는 성과를 안아왔다.

그후 구역안의 교육사업전반을 정보화하는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그 생활력은 올해의 일제시험에서 뚜렷이 검증되였다.

지난해부터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의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일제시험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 과정에 선정된 지역이 바로 평양시 락랑구역이였다.

락랑구역은 평양시에서 도시와 농촌이 다 포함되여있는 지역의 하나로서 여기에서 얻은 경험은 우리 나라의 어느 지역에나 다 일반화할수 있었다. 또한 일제시험을 보장할수 있는 교육정보화의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진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여 구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제일먼저 뜸뜸이에 의한 일제시험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박경숙 구역당위원회 부장은 당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이는 이런 성과를 이룩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일군들이 당정책을 깊이 파고들고 빠속까지 무장할 때 그 관철을 위한 묘술과 방도도 생긴다는것을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대중을 이끄는 기관차가 될 때

락랑구역이 교육의 정보화실현에서 앞서나가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바로 집단주의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킨것이며 여기에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나간것이다.

지난 시기에도 구역에서는 망가입을 비롯하여 교육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왔다. 하지만 학교들에만 맡겨놓고 여기에 응당한 힘을 넣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이 사업이 분산적으로 진행되였다. 이미 수행한 단위가 있는가 하면 아직 시작도 떼지 못한 단위들도 있었다.

그 원인을 심각하게 분석해본 다음 구역당위원회의 책임일군은 우선 망가입을 위한 빛섬유케블공사를 구역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이 사업을 구역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국가망에 가입하지 못한 모든 교육단위들에서 동시에 밀고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이 사업을 뒤에서 밀어주는 식으로가 아니라 앞장에서 이끌고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달라붙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조건보장이였다. 구역에서는 일군들이 앞장에 서고 후원단체들을 적극 발동하며 시내에 있는 학교들에서 농촌에 있는 학교들과 구역안의 유치원들을 힘껏 도와나서도록 하였다.

벽지도리와 같이 조건이 매우 불리한 농촌지역 학교들은 구역일군들이 적극 도와나서기로 하였다.

해당 단위들에 나가 그곳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는 구역일군들의 정치사업이 적극 벌어지고 이 과정에 필요한 준비가 원만히 갖추어지게 되였다.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구역의 일군들은 체신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이 공사를 위한 합리적인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중앙정보통신국 해당 분국과의 협동작전을 전개하여 총연장길이가 수십km에 달하는 빛섬유케블놓이기공사를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냈수 있었다.

당정책의 운명이 일군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사명감을 안고 현지에서 공사를 지휘하면서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발휘한 박경숙, 리철동무를 비롯한 구역당위원회, 구역인민위원회 일군들의 모습은 언제나 대중의 거울이 되였다.

국가망가입을 위한 사업을 구역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집단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한 일군들의 전투적인 조직사업과 지휘가 어떤 큰 은을 내게 되였는가.

지난 시기 분산적으로 진행하면서 잘 진척되지 못하고있던 이 사업이 동시에 벌어져 짧은 기간안에 뜰을 보게 되였고 적은 자금과 로력으로 구역안의 모든 교육단위들을 망라한 교육망을 형성할수 있게 그 기반을 튼튼히 구축한것이다.

이 성과는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이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으로 이끌어나가는 사업기풍과 일본새에 달려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일군들의 보루이 커지면 대오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재발동과 일군의 실력

교육의 정보화실현에서 구역이 거둔 성과를 말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인재들의 역할이다.

교육사업의 정보화도 역시 인재들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구역에서는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락랑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의 지도교원인 리성일동무를 핵심으로 하여 교육정보화를 실현할수 있는 인재들을 적극 동원하고 그들의 사업을 힘있게 뒤받침해주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교육사업의 정보화실현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락랑구역교원재교육강습소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해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설비들과 비품들을 그윽히 갖추어주어 인재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 그리고 일군들이 교육의 정보화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놓고 그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이끌어주는 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리성일동무를 비롯한 연구성원들이 국가망가입을 위한 빛섬유케블공사로부터 구역안의 교육정보화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던것이다.

이들의 창조적인 지혜와 재능에 의해 구역의 교육망이 물질기술적으로 더욱 정비보강되고 구역적인 교육행정관리의 정보화가 실현되여 교육사업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이제는 구역적인 회의들을 화상회의방법으로 진행하고있으며 학교들사이의 교수참관, 교원재교육, 10월8일모범교수자심의 등도 모두 원격으로 진행되고있다. 망을 통하여 교원자질평가, 학생실력평가가 이루어지고 우수한 교육사업경험들이 즉시에 구역에 일반화되여 학교들사이, 교육자들사이, 학생들사이의 경쟁열풍을 고조시키고 교육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는데서도 큰 역할을 놀고있다. 이렇듯 교육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올해초에 진행된 구역적인 일제시험과정을 보아도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당정책관철에서 역시 인재들이 큰 몫을 맡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당정책관철의 길은 언제나 인재들과 함께 가는 길이다.

구역의 일군들은 이런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교육의 정보화실현을 위해 앞장에서 달려온 박경숙 구역당위원회 부장의 사업과정이 바로 그러하였다. 그는 제대군관인 리성일동무와 손잡고 일하는 과정에 그의 실력수준을 가늠하게 되였고 귀중한 보배를 찾은 심정으로 그의 사업을 적극 밀어주었다. 박경숙동무 역시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당일군으로 성장한 제대군관으로서 기계, 정보기술을 비롯한 일정한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파악이 깊었다.

우리 당을 총대로 옹위하던 군인시절의 그 정신, 군인기질과 배짱으로 늘 그들의 마음이 합쳐졌고 서로의 지혜와 재능을 한데 모아 시작한 일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군 하였다.

이런 사업과정이 바로 오늘의 성과를 안아온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였다.

인재가 인재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결국 인재들을 찾아내는 밝은 눈도 일군의 실력이며 인재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 방법론도 일군의 실력에서 나온다.

대중을 이끌고 당정책을 집행해야 할 일군의 실력이 낮으면 인재를 찾아낼수도 없으며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이끌어갈수 없다는것을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잘 말해주고있다.

* *

오늘 우리 당은 교육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국가의 장래와 관련되는 중차대하고 전략적인 문제로 내세우고있다.

지금 평양시의 모든 구역, 군들과 각 도의 여러 군들에서 일제시험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앞으로 일제시험을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데서도 교육의 정보화실현은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교육부문에서도 남이 한것을 답습하며 뒤따라갈것이 아니라 단번에 뛰여넘는 만리마속도를 창조해나가자면 모든 일군들이 락랑구역일군들처럼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당과 발걸음을 같이해나갈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안고 당의 교육정책관철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 헌신적인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발휘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사기자 공로혁

평양철도건설려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불같은 충정과 의리로 안아온 결실

지난 9일 신문과 방송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시각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속에 서로 얼싸안으며 격정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수백t의 금결제를 삼지연군꾸리기공사장에 보내준 평양철도건설려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사관철하는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삼지연군은 사계절가 운데서 겨울기간이 제일 길고 우리 나라에서 평균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의 하나이다. 이런 조건에 맞게 건설에서 양생시간을 훨씬 단축할수 있게 금결제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은 공사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

지난해 11월, 바로 이 무겁고 엉예로운 금결제생산과업이 평양철도건설려단에 맡겨졌다. 당의 의도대로 하루빨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칠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려단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분발해나섰다.

사실 려단과 일부 단위들에서 요구되는 적은 량의 금결제나 보장하면 크지 않은 생산기지에서 이것은 아름찬 과업이 아닐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꾸리기 위한 성스럽고 보람찬 투쟁에서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자. 예비는 우리의 심장속에 있다.

이런 불같은 의지를 백배한 려단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주저없이 해당 과학연구기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최단기간에 금결제의 하루생산량을 종전의 근 10배로 끌어올릴수 있는 새로운 생산공정확립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반응량크와 건조로건설장, 배풍기제작전투장을 비롯한 그 어디에서나 분분초초는 전선시간처럼 흘렀다.

은영남, 김은철동무를 비롯한 용접공들과 제관공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로 열흘은 걸려야 한다고 하던 배풍기제작을 단 5일만에 끝낸 때 김희혁, 장은혁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로동자들은 건조로, 반응량크축조를 일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겨나갔다. 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을 위해 리금하, 김명섭동무를 비롯한 려단의 일군들이 해당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아 밤이 닳도록 뛰여다니고 216사단의 힘있는 화선선동과 성의있는 지원속에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여 생산공정건설은 20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끝났다.

생산능력이 높아진 조건에서 종전의 로력으로 금결제를 생산하는 과정도 헐치 않았다.

하지만 소대장 송명근동무를 비롯한 자력갱생소대의 전투원들은 삼지연군을 하루빨리 더 잘 꾸리는것이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오직 하나의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금결제생산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천정기중기를 비롯한 운반기계들에 이상이 생겨 순간이라도 가동을 멈추면 너도나도 떨쳐나동짐으로 자재를 운반하였으며 하루계획 150%도 성차지 않아 교대를 미루어가면서 헌신의 땀을 바치였다.

이렇듯 방대한 과제앞에서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억척의 신념으로 모두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순간도 랑개를 늦추지 않고 위훈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하기에 려단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지난 기간에는 엄두조차 낼수 없었던 수백t의 금결제를 불과 5개월이라는 기간에 생산하여 삼지연군꾸리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지금 이곳 려단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기 위해 헌신과 열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소중히 안고 사는 부름

‖ 우시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인 조영철동무와 그의 안해 공금옥동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북변인 우시군에서도 수십리 떨어져있는 궁벽한 산골마을에 우리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을 수많이 찾아하여 해당 지역의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는 우시군인민보안부 아래단위 일군인 조영철동무와 그의 안해 공금옥동무이다.

박달나무도 얼어터진다는 북방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몇해전 겨울이였다.

별하리의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에서는 며칠째 밤마다 산골물이 흘러내려 생긴 얼음을 깨내는 소리가 멀음줄 몰랐다.

그때는 누구도 그 소행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랐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들까불며 학교로 가고 운전사들이 마음놓고 운행길을 달릴수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조영철동무라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이곳 사람들의 감동은 그 얼마나 컸던가. 오늘만이라도 좀 쉬라고 안타까이 말하는 안해에게 밤중에 얼음을 까고 물길을 내주지 않으면 아침엔 도로가 온통 얼음바다가 된다고 말하며 헌헌히 도끼를 들고 집을 나서던 인민보안원, 그런 일은 해마다 반복되였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인민보안원이라는 부름을 더욱 빛내이는것, 이것은 조영철동무의 삶의 목표이고 지향이며 행복이였다.

가막천을 가로지르며 일떠선 조물평1호다리를 비롯하여 여러 다리가 있는 곳에는 몇해전까지만 해도 징검다리, 나무다리가 놓여있었다. 장마철이면 큰물로 길이 막혔고 겨울이면 얼음판으로 변하던 그곳들에 중량화물자동차들도 마음놓고 운행할수 있게 콩크리트다리가 세워지게 된데도 조영철동무와 그의 안해 공금옥동무의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몇년전 어름 어느날이였다.

장마철피해정형을 료해하던 조영철동무의 마음은 여느때없이 괴로왔다. 눈앞에는 장마비에 가막천이 불어나 먼길을 에돌아다니는 사람들과 학생들의 모습이 삼삼히 밟혀왔다.

(인민의 충직한 복무자가 되자고 입버릇처럼 외워온 내가 아닌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진짜배기 충복이 되자.)

그날 저녁 그는 안해 공금옥동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도 공금옥동무는 못 잊을 그 저녁에 몇명 안되는 산골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고 통학렬차를 보내주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삶을 빛내이자던 조영철동무의 뜨거운 진정의 목소리와 열정적인 모습을 감회깊이 추억하군 한다.

그때부터 조영철동무와 공금옥동무는 별하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과 힘을 합쳐 가막천에 콩크리트다리들을 차례로 일떠세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또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은 더우기 아니였다.

한개의 다리를 건설하는데도 십여t 지어 수십t의 세멘트와 많은 강재가 필요하였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바친 지성은 얼마이며 걸은 길은 또 그 얼마이던가.

조물평5호다리를 건설할 때였다.

건설에 필요한 철근을 미처 얻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이들부자에게 새겨져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인가.

몇해전 어느날 뜻밖의 화재로 담당지역의 최룡일동무의 가정이 재난을 당하였을 때였다. 어려차례에 걸쳐 식량과 옷, 부엌세간은 물론 이불과 베개까지 마련해주며 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보아주는 조영철동무를 두고 사람들은 최룡일동무에게 친척인가고 묻군 하였다. 그러나 최룡일동무 역시 조영철동무를 얼굴로만 알고있는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날도 최룡일동무의 집에 찾아온 조영철동무와 공금옥동무는 오늘이 연립이의 생일인데 왜 알리지 않았는가고 하면서 옷과 갖가지 식료품을 내놓는것이였다.

그 순간 최룡일동무와 그의 안해는 크나큰 감격에 오열을 터뜨리고야말았다.

《저희들이 뭐라고 이렇게… 《저도 인민보안원의 안해가 아니예요.》

이렇듯 이들부부의 깨끗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고향땅을 더 잘 꾸려가려는 별하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에 의해 가막천기슭에는 여러개의 콩크리트다리가 생겨나게 되였고 큰물에 가막천을 에돌아다니던 일이 옛말로 되였다.

조영철동무와 공금옥동무의 이름은 별하리의 늙은이로부터 유치원꼬마들에 이르기까지 이곳 주민들모두의 마음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인가.

(인민의 충직한 복무자가 되자고 입버릇처럼 외워온 내가 아닌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진짜배기 충복이 되자.)

그날 저녁 그는 안해 공금옥동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도 공금옥동무는 못 잊을 그 저녁에 몇명 안되는 산골마을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고 통학렬차를 보내주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길에서 삶을 빛내이자던 조영철동무의 뜨거운 진정의 목소리와 열정적인 모습을 감회깊이 추억하군 한다.

그때부터 조영철동무와 공금옥동무는 별하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과 힘을 합쳐 가막천에 콩크리트다리들을 차례로 일떠세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또 누구나 걸을수 있는 길은 더우기 아니였다.

한개의 다리를 건설하는데도 십여t 지어 수십t의 세멘트와 많은 강재가 필요하였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바친 지성은 얼마이며 걸은 길은 또 그 얼마이던가.

조물평5호다리를 건설할 때였다.

건설에 필요한 철근을 미처 얻지 못해 안타까와하던 이들부자에게

력사의 반동들의 도전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낡은것이 망하고 새것이 승리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그러나 시대의 기슭으로 밀려나는 오물들 깨끗이 청산하지 않는다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올해에 남조선에서는 보수패당의 반역통치에 격분한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항쟁에 의해 만고대죄를 저지른 박근혜역도가 탄핵당하여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남조선인민운동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초불항쟁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악정,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괴뢰보수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초불항쟁에 의해 박근혜《정권》이 종말을 고한것은 불의를 용납치 않는 인민의 무한대한 힘이 안아온 승리였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의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역도는 감옥에 처박혔지만 보수의 잔여세력들은 그대로 남아 초불민심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면서 파멸의 함정에서 헤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은 집권기간 저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력사무대에서 물러날 대신 초불민심에 악감을 품고 적폐청산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을뿐아니라 보수의 부활과 재집권을 꾀하며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이로 하여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고 초불민심의 요구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올해 괴뢰보수패당이 저지른 죄악중의 죄악은 초불민심을 모독하고 정의를 짓밟으면서 력사의 흐름을 되돌려세워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한것이다.

박근혜탄핵을 기를 쓰고 반대하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으로 쏴죽여야 한다.》는 폭언까지 서슴없이 줴치던 괴뢰보수패당은 역도의 탄핵이 결정되자 서둘러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탄핵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느니, 《책임을 통감》한다느니 하며 노죽을 피웠다. 그것은 사실상 사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초불민심의 분노를 눅잦히고 박근혜탄핵으로 멸망의 나락에 굴러떨어진 《자유한국당》을 구해보려는 교활한 술책이였다. 한편 《바른정당》패거리들은 《탄핵은 바른 선택이였고 옳은 결정》이였다고 뻔뻔스러운 나발을 불어대면서 초불항쟁의 열매를 가로채려고 발광하였다.

이러한 기만술책이 통하지 않게 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것들은 저저마다 저들을 《정통보수》로 광고하며 《보수재건》, 《보수대통합》의 간판을 내걸고 바퀴새끼처럼 흩어져버린 보수세력들을 규합하여 초불민심에 대항하려고 책동하였다. 이것은 보수정당의 해체와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였다.

멈치없이 권력의 자리로 복귀하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은 지난 5월에 있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은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느니, 《강한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느니 하고 얼을 올리는 한편 《안보위기》와 《색깔론》북풍을 요란히 두드리면서 민주개혁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선거판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꾀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이 후안무치한 시정배들은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니, 《정치개혁》이니 하는 간판들을 내걸고 등돌린 민심을 꼬드기면서 어떻게 하나 《정권》을 가로채려고 미쳐날뛰였다.

그러나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적폐세력의 발악적인 도전은 오히려 인민들의 더 큰 환멸과 분노를 자아냈으며 그로 하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그야말로 지리멸렬의 위기에 처하게 되였다.

하지만 괴뢰보수패당은 파멸의 운명에 순응하려 하지 않았다.

인민들의 드높은 적폐청산, 반보수투쟁기운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일당은 저들의 목줄을 조이는 특대형범죄수사에 대해 《완장부대의 인민재판》이라느니, 《정치보복의 망나니칼춤》이라느니 하고 악청을 돋구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날뛰였다. 그런가 하면 《좌파광풍시대》가 도래할수 있다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초불민심을 모독하는 한편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느니, 《대북제재공조를 무너뜨린다.》느니 하고 헌 당국을 물어대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또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면서 전술핵무기재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트럼프에게 보낸다, 서명운동을 벌린다 하며 분주랑을 피웠다. 나중에는 미국에 찾아가 상전들에게 전술핵무기재배치와 반공화국제재압박의 강화를 구걸하는 역겨운 추태를 무려였다. 이것은 친미주구, 대결광신자로서의 저들의 본성을 인정받고 상전의 뒤받침밑에 팔수에 찬 전력탈취야심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흉심의 발로였다.

괴뢰보수패당은 이렇듯 한해동안 남녘의 초불민심에 역행하면서 짖어지가는 명줄을 부지하고 보수부활과 재집권의 개꿈을 이루어보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올해의 남조선정세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반동보수세력은 비록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졌지만 결코 스스로 물러서지 않으며 관뚜껑을 덮는 마지막순간까지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독재통치를 일삼으며 부귀향락을 누리면 이전 처지를 되살리려는 야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것이다.

망치가 약하면 못이 솟는 법이다.

박근혜역도의 부역자로 마땅히 준엄한 심판대에 나섰어야 할 괴뢰보수패당이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살아 날치면서 적폐청산에 정면도전해나서고있는것은 헌 남조선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적폐청산에 대해 떠들었지만 실지로는 미국과 괴뢰보수세력의 눈치만 살피면서 초불민심을 배신하는 길로 나갔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을 당장 해체하라!》고 매일과 같이 웨치면서 반역정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을 적극 전개하고있다. 하지만 초불《정권》으로 자처하는 헌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투쟁과는 배치되게 이제 시작이나 다름없는 적폐청산을 시급히 마무리하려 하는가 하면 범죄집단인 보수패거리들에게 빌붙으면서 《국정》의 안정적추진을 위한 협조를 청탁하고있다.

최근 괴뢰집권세력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놀음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것도 보수층을 끌어당겨 저들의 통치기반조성에 써먹으려는 불순한 목적에 따른것이다. 다 망해빠진 보수세력의 환심을 사보려고 《국민통합》을 떠들어대는 괴뢰당국의 어리석은 처사는 적폐청산, 반보수투쟁의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괴뢰집권세력의 망동이 보수패당에게 살길을 열어주는것으로서 초불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으로 된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도 없다.

독초는 뿌리채 뽑아버릴 때에만이 후환을 없앨수 있다.

력사의 반동들의 도전을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초불항쟁의 성과는 여지없이 짓밟히게 될것이다.

괴뢰보수패당의 발악적인 도전을 가차없이 짓부셔버리고 력사의 오물을 깨끗이 청산해버릴 때까지 적폐청산, 반보수투쟁의 기치를 절대로 내리우지 말고 투쟁을 더욱 완강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남조선인민들이 복잡다단했던 이 한해를 돌이켜보며 새겨안는 교훈이다.

박 철 준

대세도 분간 못하는 어리석은 망동

얼마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반공화국《제재결의》는 우리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말살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흉악무도한 기도의 산물이다. 지금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벌려놓은 불법무법의 반공화국《제재결의》조작책동을 단죄규탄하면서 그것이 몰아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그런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새로운 반공화국《제재결의》가 조작되자 회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준수없이 놀아대는자들이 있다. 다름아닌 남조선괴뢰들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새로운 《제재결의》조작을 위해 맨 앞장에서 분주랑을 피운 괴뢰들은 그것이 발표되자마자 《지지환영》한다느니, 《핵포기를 위한 제재결의》라느니 하는 얼빠진 나발을 불어댔다. 그런가 하면 《제재의미를 인식》하고 《도발을 중단》하라느니, 《핵포기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오라느니 하는 주제넘은 수작을 줴쳐댔다. 나중에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제재결의를 철저히 리행》하겠다고 고아대면서 반공화국제재압박에 더욱 미쳐날뛸 흉악한 속심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신자들만이 벌려놓을수 있는 도발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식탈장마끝에 해빛이나 본듯이 폐재를 올리며 반공화국압살을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범죄적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서는 괴뢰들의 추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번의 반공화국《제재결의》조작과 관련한 괴뢰들의 도발망동은 무지스럽고 대세도 판별할줄 모르는 얼간망동이들의 가소로운 발광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들은 친미사대에 눈이 멀고 동족대결에 환장한 나머지 정상적인 사고기능마저 완전히 마비되였다. 그렇지 않다면 반공화국제재소동이 무질없는 헛수고라는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할수 있는가.

우리 공화국은 세계적인 핵강국,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이다.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력은 모든것이 안온한 환경과 풍족한 조건에서 마련된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국가핵무력강화를 어떻게 하나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의 가장 야만적인 제재와 광란적인 해위협공갈책동속에서 간고분투하여 이룩한것이다.

우리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원쑤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왔다. 남들같으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기적들을 불과 1~2년안에 이룩하였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은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이 완전히 실패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 꿰진 제재북풍을 두드리며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살소동에 미쳐날뛰고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자들인가.

지금까지 9차례의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재결의》에도 끄떡없이 자위적핵보유의 길로 매진하여 가질것은 다 틀어진 우리가 10번째 《제재결의》에 놀라 주춤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과 망상은 없을것이다.

이번에 적대세력이 꾸며낸 반공화국《제재결의》는 우리 천만군민이 세기를 두고 다지고다져온 대미결산의지를 총폭발시키는 뢰관으로 될뿐이다. 우리에 대한 군사적타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극악무도한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한 미제와 최후의 결판을 보아야 하며 그 추종세력들까지 말끔히 쓸어버리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미국의 범죄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추종하여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는 괴뢰들은 매국반역행위의 종착점이 긴장격화이고 전쟁이며 저들의 무덤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야합하여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며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괴뢰들의 도발적망동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필승의 신심과 기상을 안고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국가핵무력강화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은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괴뢰들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을 걷어치워야 한다.

심 철 영

로씨야 미국의 파렴치한 상적행위를 폭로

로씨야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 조선연구센터 상급연구원이 18일 미국이 조선반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여러 지역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 매우 유리하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실례로 보더라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일본과 남조선을 행각하여 그들이 수백억 US$어치의 미국제무기를 구입하도록 하였다고 까밝혔다.

이 모든것은 여러 지역의 긴장상태를 무기판매와 미국의 군수독점체를 위한 추가적인 소득을 마련하는데 리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 계획

로씨야전략로케트군이 다음해에 1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를 계획하고있다.

올해에 전략로케트군은 5차례의 탄도미싸일발사를 진행하였다. 17일 이 나라 국방성 공보국이 밝혔다.

경 제 장 성

꾸바에서 올해 경제가 1.6% 장성하였다. 특히 관광, 건설, 운수, 농업 등 분야에서 성과가 이룩되였다. 2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강철생산 증가

이란에서 올해에 들어와 11월까지 강철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9% 더 늘어났다. 20일 이 나라의 메흐르통신이 전하였다.

자연에네르기리용목표

루웨이트정부가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15%를 자연에네르기로 충족시킬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그 실현을 위해 태양열을 비롯한 각종 자연에네르기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국가적관심을 돌리고있다.

제약공장 건설

르완다가 15일 첫 제약공장 건설을 시작하였다.

수도에 있는 특별경제지대에 건설되는 이 제약공장은 2019년에 운영을 시작하여 여러가지 항생제들을 생산하게 된다. 공장은 의약품의 수입을 줄이고 자체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1억US$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하군 하였다고 한다.

나 무 심 기

탄자니아에서 21일 전국적인 나무심기깜빠니야가 시작되였다.

깜빠니야시작과 관련한 의식이 도도마시에서 진행되였다.

의식에서 연설한 이 나라 부대통령은 앞으로 국토의 61%가 사막화될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번 깜빠니야는 사막화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학교와 대학, 기관과 가정들이 해마다 나무심기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는것이 법적으로 담보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깜빠니야기간에 이 도시에서만도 10만그루의 나무를 심게 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팔 레 스 티 나 인 들 반미투쟁 계속 전개, 이스라엘 탄압에 광분

팔레스티나에서 꾸드스의 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22일 가자지대에서 벌어진 반미투쟁에 참가한 수백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은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그곳으로 옮기기로 한 미국의 불법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배격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이 군대를 내몰아 시위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으며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트럼프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의 폭압에 의해 팔레스티나인 12명이 살해되고 3 70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500명이 억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집권위기에 빠져들고있는 미치광이

올해초 세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들고 대통령취임식에 나섰던 트럼프의 득의양양해하는 불꽃을 목격하였다. 《전실한 미국제일주의자》로 자처하면서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트럼프는 미국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것처럼 으시대였다.

하지만 오늘 트럼프에게 차례진것은 《정치무능아》, 《거짓말쟁이》, 《정신병자》, 《폐노끼오대통령》이라는 갖은 오명뿐이다. 집권기간 트럼프는 천하의 불망나니, 더러운 인간추물, 정화파괴자로서의 광적인 기질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미친자의 지랄발광에 불과한 트럼프의 이른바 《정치》로 하여 국제사회는 더욱 소란해지고 미국은 극도로 고립되고있다.

지금 미국의 정계, 사회계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고조되고있으며 트럼프를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워터게이트사건으로 탄핵의 칼도마우에 올랐던 닉슨에 비해볼 때 트럼프탄핵기운이 비할바없이 높다.

트럼프가 매우 변덕스럽고 과격하며 문제를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경솔한 인물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것이 미국내 민심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러한 속에 최근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한 녀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진상조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여나섰다. 이것이 파문을 일으켜 가뜩이나 집권위기에 시달리던 트럼프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있다. 트럼프를 성범죄혐의로 재판정에 출두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민주당은 때를 만난듯이 트럼프의 비행조사에 극성을 부리고있다. 민주당계 법관 50여명은 트럼프의 비행조사단에 망라될것을 자진해나섰다. 어느 한 민주당출신의 국회 상원 의원은 《트럼프는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 물론 그는 책임을 무인할것이다. 때문에 국회조사단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트럼프의 대통령당선을 뒤받침한 공화당의 적지 않은 인물들까지도 탄핵에 합세할 자세를 취하고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인 헤일리도 트럼프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백악관은 지주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권잔을 주었다.

집권초기부터 여론의 탄핵압력에 시달리면서도 자기가 탄핵되면 력사상 그 어떤 탄핵보다 텔레비죤방송시청률이 높을것이라는 객적은 수작까지 늘어놓았던 트럼프가 이제는 제 처지를 통절히 인정할 때가 되였다.

최근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트럼프에 대한 지지률이 32%를 기록하여 력대 미국대통령들의 취임 1년후에 진행한 여론조사결과들과 비해볼 때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동안 언제 한번 좋은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저주와 규탄만을 받아온 트럼프에 대한 민심의 반영이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트럼프는 모든 불행의 화근이다.

《화염과 분노》라는 핵전쟁폭언을 늘어놓다 못해 평화를 론하는 유엔무대에서까지 주권국가에 대한 《완전파괴》망발을 내뱉은자가 트럼프이다.

《도이췰란드제일주의》를 떠들면서 전인류를 전쟁의 참화에 몰아넣었던 히틀러의 본을 따 《미국제일주의》를 내들고 전쟁과 패권주의에 미쳐돌아가는 트럼프의 도박행위는 미국의 운명을 통채로 내건 미치광이의 모험이다. 미국의 민심이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수 있겠는가.

정치문외한, 매를매력의 왕초인 트럼프가 제 처지에 맞지 않게 요행수로 대통령감투를 썼으니 최악의 집권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것은 달리는 필수 없는 일이다.

본사기자 리 철 혁

인권의 불모지, 사람 못살 생지옥

최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날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유엔에서의 반공화국《인권결의안》채택에 적극 가담해나선 괴뢰들은 그 무슨 《인권상황개선》에 대해 떠벌이면서 미국, 일본상전들과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대결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이것은 인권의 아름다운 화원인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훼손시키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을 계속 강화하려는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다.

괴뢰들이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문제는 당만우에 올려놓고 터무니없이 우리를 걸고들며 반공화국모략에 광분하는것은 실로 뻔뻔스러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가장 처참히 유린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간생지옥이 바로 남조선이다.

올해 남조선에서는 근로대중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파쑈독재통치와 반역적악정으로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짓밟던 박근혜역적패당이 끝내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새 《정권》이 들어섰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민심에 역행하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정책, 반인민적악정이 의연히 계속되는 속에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울분과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초불《정권》임을 자처하는 새 《정권》이 들어선 조건에서 박근혜역적패당의 폭압통치의 희생물인 수많은 량심수들을 지체없이 석방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괴뢰당국은 량심수석방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생존권을 위해 떨쳐나서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권리가 박근혜《정권》시기처럼 여지없이 유린당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처지는 그야말로 비참하다.

현 남조선당국자는 집권하자마자 《100대국정과제》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으로 인민들의 생활난을 해소시켜줄듯이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였다.

지난 11월 괴뢰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남조선에서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생활처지가 나날이 어려워지고있으며 빈부격차 또한 심화되여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다.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6만 5 000여명이나 늘어났으며 청년실업률은 23.4%로서 력대 최악을 기록하고있다. 이로 하여 불행과 고통속에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꿈도 희망도 다 잃었다.》고 절규하면서 해외에로 떠나가고 지어 범죄자로 전락되고있다.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인 남조선은 자살률에서도 여전히 세계최고기록을 세우고있다. 남조선에서 얼마나 자살풍조가 만연되였으면 《저승사자》로 자처하는자들이 《고통없이 죽는 법, 100% 확실한 자살》이라는 안내문과 함께 《자살세트》라는것까지 배달해주는 놀음이 벌어지고있겠는가.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해나서는 괴뢰당국의 범죄적망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전히 통일운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당하고있다.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진보적단체들은 보수《정권》의 대결정책의 희생물인 김련희녀성과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면서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처참하게 짓밟히는 인권과 민주주의회복을 위해 현《정부》가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해나섰다.

그러나 괴뢰통일부패거리들은 낯도깨비같은 수작을 늘어놓으며 김련희녀성의 송환을 한사코 외면하였는가 하면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에 따른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나발을 불어대며 그들을 남조선에 완전히 눌러앉히기 위해 모략극까지 꾸며댔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할 반통일과 쑈악법인 《보안법》에 의해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고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진 탄압을 받고있다. 괴뢰들은 간첩혐의를 들씌워 부당하게 구속한 한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는가 하면 한 주민이 인터네트에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다고 하여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징역형을 들씌웠다.

지어 괴뢰들은 80고령의 한 언론인이 인터네트에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는 진보적경향의 글을 올린것을 범죄시하면서 장패들을 내몰아 그의 집을 강제수색하고 매일 7시간이상의 강도높은 조사놀음을 벌리였다. 이 극단적인 인권유린행위는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한 언론이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다. 이런 애국적인사를 탄압하고 로인학대를 하라고 민중이 추운 겨울 광화문광장에 나와 초불시위를 벌려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인륜도 도덕도 모르는 괴뢰집권세력을 괴뢰패덕의 무리로 단죄하였겠는가.

얼마전 괴뢰당국은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로총이 창립 72돐을 맞는 조선직업총동맹앞으로 보내려는 축전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걸고들면서 그것을 끝내 보내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이것이 바로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며 대결소동에 광분하는 괴뢰들의 추태이다.

보수《정권》과 다름없는 현 당국의 반인권적처사에 분노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우리의 삶을 투쟁으로 바꾸자.》고 웨치면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적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으로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어째보려는 어리석은 야망을 버리고 제 집안의 험악한 인권실태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엄 수 련

날강도적인 양키식오만성의 극치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행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표결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다른 리사국들이 모두 지지한 결의안이 미국의 전횡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분노한 국제사회는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의 결정을 배격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관철을 보기로 하였다.

한편 미국방성이 꾸드스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아랍 및 이슬람교국가들에 주재하고있는 미국대사관의 안전을 위해 해병대원들을 파견해야 한다고 떠들고있어 상황은 더욱 험악해지고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무참히 짓밟고도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미제의 양키식오만성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꾸드스의 지위문제는 정치적 및 력사적, 법적특수성으로 하여 매우 예민하다. 응당 팔레스티나인민의 민족적권리회복과 중동문제해결의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끝끝내 인정함으로써 위험천만한 대립과 충돌의 불집을 터뜨려놓았다. 팔레스티나만이 아닌 이슬람교세계전체를 유린하였다. 국제사회가 수십년간 중동평화과정을 위하여 기울여온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세계적인 분쟁이 초래될 위기가 조성되였다.

아랍세계가 미국을 향해 일제히 분노의 주먹을 쳐들고 국제사회가 정견과 신앙, 국적의 차이를 초월하여 트럼프의 결정을 규탄배격하는 총의를 반영한 결의안을 상정시킨 리유가 여기에 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저들은 임의로 대사관설치장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유엔무대의 연락을 두드려대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미국에는 국제사회가 보이지 않으며 아랍인민들의 지향과 항거같은것은 모기소리만큼도 여겨지지 않는다는것이다. 세계에서 결정권을 가진 나라는 오직 미국뿐이며 다른 나라들은 그에 복종할 의무만 있다는것이다.

지어 트럼프는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서 꾸드스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에 지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유치한 위협까지 해댔다. 유엔주재 미국대표 헤일리는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이름을 적어들것이라는 공갈도 서슴지 않았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특권적지위를 악용하여 국제사회를 롱락하다 못해 악의 제국의 파렴치성을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세계인민들의 념원을 이렇게 무참히 유린하려드는 평화과괴자, 천하의 날강도가 바로 미국이다.

유엔도 세계도 저들에게 복종하든가 아니면 짓밟혀야 한다는 미제의 극단한 양키식오만성에 행성이 치를 떨고있다. 영국, 프랑스, 도이췰란드를 비롯한 동맹국들까지도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반대하며 이스라엘주재 자국대사관들을 절대로 옮기지 않을 립장을 표명하였다.

아랍나라들에서는 미국의 망동은 유엔결의들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도전이고 국제범죄로서 외교적이며 경제적인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일치하고도 강경한 주장들이 터져나오고있다. 국제적범위에서 미국상품배척을 법으로 제택하는 등 정치, 경제적제재를 가해야 한다는것이다.

유엔주재 각국 외교관들은 미국의 전횡이 결코 긴급특별회의에서의 투표결과를 바꾸지 못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투표결과는 역시 미국의 고립이였다.

미국방성의 해병대파견수작은 더욱 파렴치하고 침략적이다.

꾸드스문제로 아랍 및 이슬람교나라들에 있는 미국외교관들이 위험하게 되였다는것이 그 리유인데 황당무계하다.

꾸드스로 미국대사관을 옮기는 문제는 이라크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전쟁이상의 과국을 예고하는 재난의 시한탄이다.

문제해결의 방도는 명백하다. 미국이 히스테리적인 결정을 철회하여 근원을 제거하면 모든것이 간단하게 풀린다.

그러나 미국은 굳이 이슬람교나라들에 로의 미해병대파견을 제창하고있다.

미해병대는 침략의 선견대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인과 파괴, 략탈로 악명떨친 미해병대는 온 아랍세계가 치를 떠는 살인무리이다.

이런 악귀들을 자국대사관안전을 구실로 들이밀어 이슬람교세계의 항거를 총과 군화발로 짓이기겠다는것인데 침략으로 생겨나고 살륙으로 비대해진 미제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양키식사고방식이다.

중동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전란의 참화를 몰아오는 극악한 평화유린자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입에 올릴 한조박의 체면도 없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전반적유엔성원국들은 유엔이 미국이라는 일개 성원국의 강권과 전횡에 갈수록 무참히 란도질당하는 비극적현실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개혁필요성을 더더욱 절감하고있다.

유엔과 세계우에 군림하려는 미국은 이 행성의 암적존재이다.

오만한 제국주의는 국제적인 교림과 규탄배격을 면할수 없다.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련대성은 확고부동하다.

리 효 진

심각한 전자오물처리문제

세계적으로 전자오물처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국제적인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생겨난 전자오물량이 2014년에 비해 8% 늘어나 4 470만에 달하였다.

현재 전자오물이 회수 및 재생리용되는것은 불과 20%에 달하며 3 410만에 대해서는 그 처리가 명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자오물량이 더욱 늘어날것으로 예견하고있다.

일본인들 군용기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소송 제기

일본의 미야자끼현 주민 120여명이 18일 항공《자위대》의 뉴따바루기지(미야자끼현 신또미정)소속 군용기들에 의한 소음피해와 관련하여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고 울분을 표시하면서 당국이 야간과 주간에 진행하는 군용기비행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현주민들에게 1인당 3만 5 000엔을 지불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군기지를 포함하여 군사기지의 소음을 둘러싼 소송은 오끼나와현, 이시가와현, 아마구찌현 등 6개 지역에서 제기되고있으나 소송들에서 비행금지를 인정하지 않는 관결이 계속 내려지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205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및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